

##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

리 정 범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의 한길을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우리 인민의 투철한 리념과 투쟁방식으로 이어져온 자주는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높이 떨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변함없는 기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이며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기초이라는것을 확증하시였으며 20세기 력사의 흐름을 자주의 길로 이끄시여 인민대중이 지배와 굴종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해나가는 자주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하시였다.》

력사의 정의가 무엇이며 혁명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간고한 혁명투쟁의 환경으로부터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이다.

정의와 부정의,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은 그것이 사회발전과 혁명운동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데 따라서 설정된다.

력사를 전진시키는것이 정의라면 력사의 전진을 가로막고 되돌려세우려 하는것은 부정의이다. 혁명운동에 도움을 주고 추동하는것이 승리와 잇닿아있다면 혁명을 방해하고 해를 주는 요인은 실패를 초래한다.

정의와 부정의,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은 인민대중과 결부시켜야 한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력사를 전진시키는 주체이며 혁명운동의 담당자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며 자기의 성실한 활동으로 인류력사를 창조하고 혁명운동을 전진시켜나가는 가장 귀중한 존재,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인민대중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인민대중의 활동보다 더 위력한 힘을 발휘하는것은 없다.

인민대중을 무시하고 그들을 매장하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나 목적도 력사의 정의로 될수 없으며 더우기는 혁명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이 저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이 마치도 력사의 《정의》라고 떠들고있지만 아무리 교묘하게 은폐해도 그것은 부정의와 반혁명을 대표한다.

력사의 정의와 혁명의 승리는 인민대중에게 있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투쟁에 이바지하는것이 바로 정의이고 승리이다.

정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그것은 정의가 인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고있기때문이다. 인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들의 역할을 억제하는 부정의는 기만과 강권으로 일시적으로는 득세할수 있으나 자체의 모순과 인민의 반항을 피할수 없으며 치렬한 투쟁속에서 파멸된다.

자주는 우리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며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의의 기

치, 혁명승리의 기치이다.

자주가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민족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지배와 사대에 의하여 산생되는 력사의 부정의와 사회주의운동의 쓰라린 곡절을 체험하면서 얻은 교훈으로부터 찾은 진리이기때문이다.

정의롭고 평등하게 살려는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도전해나선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적불평등은 인류사회발전의 초시기부터 사람들을 괴롭히었으며 비극적실례를 수많은 빚어냈다.

강한것이 약한것을 먹어버린다는것은 자연의 생명체들사이에 작용하는 생존방식이지만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이 방식이 배제되지 않았으며 정치적비극의 근본원인으로 되었다.

사회다윈주의자들은 자유경쟁이야말로 사회발전의 《추동력》이며 《렬패자》는 사멸하고 《최적자》가 존속하여가는 과정이 사회발전과정이라고 주장한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고 침략하는것은 응당하다는것이다.

그러나 력사는 강대국들에 의하여 초래되는 살륙과 파괴, 침략과 전쟁이 인류의 발전에 얼마나 큰 해독을 끼쳤는가 하는것을 산 증거로 남기고있다.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은 우리 민족이 복잡다단한 력사적과정속에서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진리이다.

우리 나라는 아시아지역의 동북부의 유리한 지리적위치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특별히 외래침략의 세례를 많이 받아왔다.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견결한 반침략애국투쟁으로 격파하였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강했다. 그러나 인민들의 투쟁을 옹바로 이끌어야 할 봉건통치세력들이 사대주의에 물젖기 시작하면서 민족의 자주적발전에는 엄중한 난관과 편향이 나타났다.

특히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 사대가 더욱 심하게 나타났으며 통치배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정치적지반을 유지해나가려고 여러 파벌로 갈라져 저마다 주변대국들을 끼고돌면서 예측과 망국의 비운을 몰아왔다. 왕궁도 남의 나라 군대가 지켜주는가 하면 왕이 남의 나라 대사관에 피신해있고 외국군대가 궁성에 침입하여 황후를 무참히 살해해도 항변하지 못하는것이 조선봉건왕조말기 썩은 정치로 인한 우리 민족의 가슴아픈 현실이었다.

사대가 우리 인민에게 가져다준것은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이였다.

40년에 걸치는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식민지통치속에서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받고있던 우리 민족을 이번에는 《독립》이라는 간판을 쓴 사대주의가 또다시 우롱하였다.

우리 민족은 값비싼 피를 흘리면서 자주가 결여된 정권이 자기들을 지켜줄수 없으며 남의 원조를 구걸하는 청탁이 국권을 회복할수 없다는것을 귀중한 진리로 새겼다.

인류의 지향을 반영하여 출현한 사회주의위업도 지배와 사대에 의하여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되고 새 사회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해나가는데서 매개 나라들은 창조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대신 큰 나라에 환상을 가지고 아부굴종하면서 교조적으로 추종하였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마치도 국제주의와 배치되는것처럼 평

가되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고 큰 나라는 로골적으로 대국주의에로 나갔다. 자기 나라에서 수정주의를 하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수정주의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는 따돌리고 배척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을 해치고 사회주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업으로 발전하는것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지배와 사대는 매개 나라들의 창조적발전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의 변질을 촉진시켜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을 련이어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이 겪은 불행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이 보여주는것처럼 지배와 사대는 결코 작은 나라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줄수 없으며 불평등과 망국을 초래하는 위험한 독소라는것을 보여준다.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일수록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실정에 맞게 모든것을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곡절많은 력사의 길을 걸어오면서 찾은 고귀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를 총화하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한평생 구현하여오신 자주야말로 우리의 혁명신조이고 혁명방식이며 혁명실천이라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주를 전략적이고 항구적인 투쟁목표로, 활동원칙으로 내세우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력사의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자주가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침략과 전쟁을 방지하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세계화》가 요란하게 제창되고있다. 《세계화》는 경제의 《다국화》와 서방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명밑에 매개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데 리용되고있다.

서방나라들은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나라들사이의 경제교류가 세계적범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자주적인 민족독립국가건설리념이나 조국애, 민족애 같은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적편견》이며 《세계화》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떠들고있다. 그들의 기본목적은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정권을 고립, 붕괴시키자는것이다. 실제로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던 나라들에서 내정이 복잡해지고 정권이 교체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지배주의가 판을 치는 엄혹한 환경속에서 자주를 견지하는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 생존의 위험까지 각오하여야 하는 간고하고 어려운 길이다. 그렇기때문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배심있게 세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실천을 현대정치사에 특기할 기적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강권과 전횡이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주권을 잃고 양보와 타협, 순종의 길로 나간다면 《현대판》식민지의 운명을 피할수 없다. 자주를 잃어버린 정권은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로 되어버리고 자주적발전이 막혀버린 민족은 자기

의 재부와 정신, 전통을 모두 잃어버린 대가로 남의 《원조》와 《투자》를 쳐다보며 근근히 살아가는 불쌍한 민족으로 되고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자주적대를 견지하는 바로 여기에 나라와 민족이 부강번영하는 길이 있다.

지배와 사대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도 사회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이며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마비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특히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자주적대를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으며 민족의 부흥을 이룩할수 없다.

령토의 크기나 지리적위치가 나라와 민족의 지위를 결정하는것은 아니다.

한때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대국들의 전략적리해관계가 얽혀진 지역에 놓여있는것으로 하여 침략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지리적위치의 불리한 점들에 대해서만 론의하였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견해가 맞지 않는다. 작은 나라도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탁월한 정치지도자를 모시면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국의 지위에 올라설수 있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걸어온 100년사는 바로 자주의 력사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을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평화는 매우 귀중하지만 그보다도 자주가 더 귀중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온갖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끄떡없이 든든한 배짱과 담력으로 주체조선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며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해나가고있다.

백승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로정은 이 땅우에 어떻게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이 일떠섰으며 세계적인 정치적동란과 외부세력들의 그 어떤 책동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강정보루가 솟아올랐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굴함없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불변의 의지는 절대로 꺾을수도 바꿀수도 없다.

사대와 교조로 얼룩진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자주로 승리하는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사회주의조선은 영원한 자주의 보루로 빛을 뿌릴것이다.

실마리어 자주, 정의